

# '동분서주' 김관영 지사 세일즈, 이번엔 조선UP

현대중공업 본사 방문... 군산조선소 완전한 재가동 협력 당부·도 특수시책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 참여 제안

'경제도지사'를 자칭하며 전북경제 부흥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관영 지사가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1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앞둔 시점에서 현대중공업 경영진과의 면담을 추진했고, 현대중공업이 이에 흔쾌히 응함에 따라 김관영 도지사와 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진과의 만남이 성사됐다고 한다.

7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접견실에서 이루어진 면담에는 한영석 부회장, 이상균 사장, 강영 부사장 등 다수의 핵심 경영진이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 7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는 핵심 경영진들과 함께 내년 1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준비 상황과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투자에 대해 면담을 갖고 있다.

특히 한영석 부회장은 지난 9월 '제3회 지니포럼' 지니어워즈 시상식과 수상자로 만난 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만나게 되는 인연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시설보수 등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군산조선소가 철관 가공을 시작으로 소조, 대조, 판넬, 도장 등 차질 없는 공정 진행을 통해 내년 1월재가동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등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

는 LNG/LPG 등 친환경 선박의 전진기지로서 군산조선소 활용을 건의하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공장 가동'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전라북도가 중소형·특수선 중심의 신(新)조선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사업에 현대중공업의 투자 등 참여를 적극적

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해군 함정 건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방산업체이기도 한 현대중공업이 참여하게 된다면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중공업도 특수선의 건조에서 수리, 개조, 첨단화까지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분석했다.

김관영 지사는 울산조선소 시찰을 마친 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전북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일즈 도지사가 되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력 기업 관계자와의 적극적인 면담을 통해 기업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감염병에 안전한 전북을 위해' 함께 해요

2022년 신종·재출현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NEXT 코로나에 대비한 모의훈련이 3년만에 열렸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7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보건소, 의료기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2022년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2019년을 마지막으로, 3년 만에 실시된 이번 훈련은 현장에서 코로나19를 직접 대응하고 있는 참가자들로 봄봄 감염병 유행 방지를 위한 훈련의 의미를 더했다.

신종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실시한 이번 훈련은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등 감염병이 우리 도내에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발생부터 역학조사, 검체채취 등 단계별 대응을 위

한 실행기관 훈련과 감염병 확산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과의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토론기반 훈련, 개인보호구 착용·탈의 훈련 등을 시행했다.

노창환 감염병관리과장은 "전북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의훈련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적시에 신속한 대처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역의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며, 도민 스스로도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다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적십자 전북사무국-수상안전장사봉사회 간 '갈등 고조'

'대한적십자사전북지사사무국'과 사무국 소속 '수상안전장사봉사회' 간의 내부갈등으로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9월 19일 8명의 '수상안전장사봉사회' 소속 수상안전장사들이 각각 6, 3개월의 활동정지 처분을 받았다.

'수상안전장사봉사회' 측은 민원제기 행위만으로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고 사무국과 강사회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신들의

징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봉사회는 지난 3월 24일에 정기총회였던 1월 24일에 논의된 회칙을 폐기하고 강사회 집행부와 사무국이 임의대로 회칙을 개정했다며, 그 후 민원을 제기한 소속 강사들의 안전교육 강습 배제, 강사회 집행부의 징계(회원 제명) 처분 임의대로 고문을 선임하는 등 불합리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회 사무국 관계자는 "강사회 내부의 일은 소속 강사분들이나 그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라며, 자신들은 분란 해결을 위해 개입한 것이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자신들의 규정에 의하면 대내적으로 민원이나 분란을 제기한 분들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징계를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현재 동일한 민원으로 인해 사무국내 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다며 '현재 민원에 대해서 관련 규정과 지침을 어기지 않겠다'는 것을 지속해서 답변하고 있고 자신들은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지키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안전장사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 등의 교육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수상안전특강, 인명구조요원', '수상구조사' 등의 교육 활동을 받고 있다.



## 도, 관광의 날 맞아 발전·도약 다짐

정무부지사, 관광산업진흥 유공자 21명 표창장 수여  
전주대 최영기 교수 '관광산업의 변화와 대응' 특강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라북도관광협회(회장 조오익)는 관광 산업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관광관계자 격려를 위해 지난 7일 제49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중훈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조오익 전라북도관광협회장을 비롯한 관광단체, 관광업계 임직원 등 관계자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관광객 유치 등 전라북도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격려와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관광산업진흥 유공 표창 대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2명, 전라북도지사 표창 7명, 전라

북도의회의장 표창 4명 등 총 21명이다.

또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교육과 확대 실천 다짐 선언대회를 통해 전라북도 관광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특히 전주대학교 최영기 교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국제관광시장 재개 등 본격적인 일상 회복에 따라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필요한 전북민의 관광전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전주대학교 최영기 교수는 특강을 통해 전북관광의 과거와 현재, 국내외 관광환경의 변화를 설명했다. 최 교수는 "신상품 개발과 신산업 진출이라는 두트랙 전략이 필요하며 관광산업의 체질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관영 도지사, 전국체전 개막식 참석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7일 오후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 1,700여 전라북도 선수단을 격려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개막식에 이어 선수단을 방문해 "3년의 기다림 끝에 실현된 대회가 잘 적응해서 평소 실력을 발휘해 전북의 명예를 높여달라"며 "다치지 않고 무사히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임원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켜 보는 입장도 이렇게 말하는데 선수단 1,200여명을 돌보는 분들은 오죽하겠나"며 "땀의 자로서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직접 출전하는 것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도자들에게 큰 존중을 표했다.

## 도, 1회용품 줄이기 홍보 캠페인 진행

전북도는 익산시,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와 함께 익산보석박물관에서 '쓰레기는 보석이다'를 주제로 1회용품 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쓰레기가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과정을 거쳐 보석처럼 재탄생한 것을 표현하는 홍보물을 활용

에 시민과 관광객, 체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줄이기와 재활용 실천 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쓰레기의 재탄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에서 문재필이 환경가방 만들기 체험행사 등을 통해 보석박물관을 찾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1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박병준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